活動又活動! 鍾路署高等係

수표뎡일대를중심으로 또다시일대활동을시작

殯殿에親進香

대비뎐하께서도 ◇…진향하서

志願金遝至

寧日이別無한 東大門婦人病院

전횡을마음대로하라하야 가튼미국인의원장을배척

自相裂囊의그內幕

◇春川大火續報

羅姐西逐出과 朝鮮人自由를

社會를咀呪하며 애닯게죽은靑年

江上에몸을던저自殺

美展入場者 三萬二千

美展特選品

職員會를열고

…거서 원장배척의도장을 박게하엿스나 다대수의간호원들는 하락워장 배척에는절대 도장을찍을수가업다함으로 그들은 개인방문을하는등, 면회로날인을하라고 달내는등 여러가지로유모를계획하야 점점조직뎍으로 맹렬하게 되여감으로 이사실을확실히알게된 직원일동은 그들의 야심뎍비렬한음모에크게분개하야 이일전오부터 그병원에서긴급직원회를열고 그사실 진상을더욱확실히 묘사하야 그들의 비행과 또그들에게공락을 당하는자의 모든진상을 여디업시 폭로 식히는동시에 일반사회의 엄정한 비판이잇기를 바란다더라

理髮組合員 全部消燈

결의를리행하야

두보‖ 평양부내 오십여리발조합원는 일족 동조합원대회까지열어 평면에서만일 부민권뎨의요망인 면괴치하를 생각하는바업시 면괴료금을 청할때에는 동괴성회의결의를 리행하야 일데납부치안코 면료들 공탁하기로하며 만일동조합원중 한곳이라도 무리한소동을 당할때는 조합원는 동정소동을 일제히하기로결의 하엿든바 수일재횡포막심한 평면측의소등을 동조합원중에도 당한일이 잇섯슴으로 지난일일부터 동조합원은 전부소등하고 『람프』를 대용하기로하엿다더라

警察署에서 消燈數調査

拐虎會員은 懇親會開催

急設電話의 가설신청자는

全南地方에 天然痘蔓延

이미환자가팔십삼명인데 작고충남디방으로만연중

道境界에警戒嚴重

지난일월이후로 전라남도 목포(全南木浦)광주(光州)곡성(谷城)장성(長城) 해남(海南)령광(靈光)무안(務安)등각군에두창(痘瘡)(마마)환자가발생하야이래팔십삼명의 환자가 발생하엿스며 그여파는다시충청남도(忠南)디방에비화되여 론산(論山)을중심으로 이십구명의 환자가또발생하엿다는데 형세는 아직까지 종식될희망이업시 점점북으로 올라와서 언제 경성에드러올는지 모를뿐아니라 권번에서며문경찰서관내에서 한명의환자가 발생한일도 잇슴으로 도경계(道境界)를엄중경계중이라더라

開闢『포스터』 수천매를압수

시내경운동(慶雲洞)에잇는개벽사(開闢社)에서 발행하는잡지『개벽』의 륙월호『포스터ー』수천매를시내종로경찰서고등계에서불온하다는리유로이일밤에압수하얏다더라

坡州에雨雹

농작피해불소

파주군(坡州郡)일대에는 수개월동안을 두고우량과 일긔가뎍당하야 며소맥은 다풍작을 예상하고 농가에서는모다 깁버하기를 마지안햇섯는데 일일오후두시경부터 돌연히폭우가 오기시작하더니 동세시쯤되야서는 우박이 이십분동안이나 계속하엿슴으로 농작물의피해가 불소하다하며 풍작을깁버하든 농가에서는다시근심의빗을 띄엿더라(문산)

白雅悳氏送別宴

이일밤종로청년회관에서

…장환천(張煥泉)의집에서 신의주진사뎡 사십이번디(新義州眞砂町四十二番地)에거주하는 김락수(金樂洙)(三一)를 군도로 쳐서 외인쌈에 약한치가량의 상처를…

軍刀鞘로 打頰重傷

일본인순사가 모히중독자를

…내엿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본래김락수는 모히중독자로서 그날도또한 모히주사를하기위하야 전긔 면관에가서 봉천(奉天)음에사는 백도원(白道源)을기다리고 누어잇는중에 엇던청년두명이 들어오자 전긔 정원수사는 그뒤를니여 들어와서 청년한명을 무수히란타함으…

千六百度에도 堪耐하는合金

영국에서발견하얏다

영국(英國) 쳘업의 중심디방인『시에이놀도』의『하바드후이두도』광렬회사(鑛業會社)는 비상한열도에도 감내할수잇는 광렬합금(鑛鐵合金)을 발견하엿다는데 이로써제작한『가스타ー빈』은 일분간 오만오천회의속도로 회전하여도 아모고장이업다하며 일천륙백오십도의 열도에도 능히감내할수잇다더라

醉中에縊首自殺

술먹고악해하야 말다툼하고서

蔚山江東面의 殺兒한妙齡處女

어린아이를나흔즉시로 상자에담아바다에띄여

可憐한其犯罪動機

…압송하얏다는바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전긔 김재금이란 계집아이는 보래부터 근처에서 미인으로 소문이 널리나게되야 근처젊은남자들의 심장을 졸이게하든터인데 동리사는 량봉수(梁鳳守)라는 금년 이십세된청년이 김재금의고흔자태를 항상 욕심내여 긔회를엿보앗스나 김재금은 부모의감시가 엄중할뿐더러 순진한처녀의 마음이그대로잇슴으로 량봉수가 아모리 유혹코자하나 인해뜻을 일우지 못하얏든바 김재금도 차차나희가 들어가게됨애 부지불식간에 이성(異性)의따뜻한품을그리우든중 작년십이월 어느날밤에 두사람은우연히 긔약지안앗스나 조용한곳에서 맛나게 되얏든바 김재금을본 량봉수는 조흔긔회…

…들어날이가고 달이찰스록 배가불너옴으로 김재금은 대단히 놀내여 량봉수를보고 자긔의장래를처리하야달다 하얏섯스나 인정업는 량봉수는 조금도엇지할생각을 하지안음으로 김재금은 혼자속을 태우다 못하야 자긔어머니에게 사실을울면서고백(告白)하얏든바 어리석은그의어머니는 위선남붓그러운 생각만하고 분만(分娩)하기를기대려 조그마한 상자에 아이를너허 부근에잇는바다물에 띄엿섯든바 그것이발각되야 김재금은 살인죄로 그와가티 톄포 압송된것이라는바 부근사람들는 뎡조의유린(蹂躪)을 당하고돌이혀살인죄까지지게된 김재금을 일변불상히역인다더라(강동)

天皇宮奉建事件 第二巨頭逮捕

평양서에서일망타진할계획

괴보‖ 텬황궁봉건(天皇宮奉建)의 사건은조사할사록사괴한사실이 만히들어나 평양경찰서에서는 그일파를 일망타진할 계획으로 엄밀히 각처에조회를 널리하야 수색엄하는중 근경 그진상을 발표할터이라함 지난일일밤에는 전긔텬황궁 봉건의 데이거두되는김성진(金成鎭)을강원도텰원군고암산(江原道鐵原郡高岩山)에서 압송하여다가 방금엄밀취조를 행하는중이라더라(평양)

◇列車自殺‖일일오후여덜시가 조금지나서 경부선부산진(釜山鎭)과 귀포(龜浦)간을 북행데일렬차(北行第一列車)가 진행하든중 사십이삼세 가량의 일본인 남자한명이 선로안으로 뛰여들어 긔관차에 치여즉사하얏다는데 주소와 성명은알수업다하며 원인은자살인듯하다고…

仁川永化校 昇格을爲하야

동창회를연다

인천(仁川)에잇는 영화학교(永化學校)에서는 그동안학교의업무확장하기에노력중이든바 … 지뎡을엇고저하야 … 모교를위하야 힘쓸 … 삼일오후 … 내동영화학교안에서 동창회(同窓會)림시총회를연 … 동창는다수참석하기를 … 더라(인천)

中國廣東地方에 猖獗하는虎列刺

매일사망자가이백명으로 길을것다가도쓰러저죽어

往來船舶에檢疫開始

남지에도착한뎐보에의하면중국 광동성해남도(廣東省海南島)는 최근에 호렬자(虎列刺)가 창궐되여 매일사망자가 일백칠십명 내지이백명에달하야길거리에넘어저서 신음하는등 완연히디옥가티 보인다하며 또그대안(對岸)에도 역시호렬자가류행하야 매일사망자가 오십명식에 달하엿슴으로향항령(香港領)에서는 각방면에 통과하는선박에 대하야비상한 검역을 시행하고잇다더라

自轉無錢旅行 雄基靑年着京

본사를래방한후 수원으로떠낫다

자뎐거를타고 웅긔(雄基)를떠나 함경남북도와 강원도를 거쳐 경긔도에 이르기까지 도합이십 … 본사를래방하고 익일아츰에 남도디방을향하야 수원(水原)으로출발한이가잇는데 그는신흥을 연구하는 예수교신자맹홍태(孟弘泰)씨인바 지금까지하로에평균백오십리식을 려행하얏스며 그뜻은 조선의향토를 꼿꼿이밟아가며 심신의 수양을하자함이라는데 남도의 려행을마티고는 서도디방을 거쳐압록강(鴨綠江)두만강(豆滿江)의 국경을밟…

(사진은맹홍태씨)

活路를일흔 三湖市婦女들

아이들과가티창해에빠저 하로밧비죽는것이낫다고

漁業組合을怨望하며痛哭

함남삼호(咸南三湖)에서는륙월일일아츰에 시장내에서 여러부녀들의 곡성이 창텬하엿섯는데 그내용을듯은즉 삼호의중앙인그시장에서 어물을판매(魚物販賣)하되 삼분지이가량은가난한집부녀들이 하는것으로 그들은그것으로도푼이나벌어서입에 풀칠을하든것인데 륙월일일부터 당디어업조합에서는조합부근에 어물공동판매소를설치하고그곳에서어물판매를하는바이부녀들은 일조에살길을일흔바이제부터는할수업시 죽는수밧게업스니 텬지란만한 아이들을 하로라도 더고롱을 주지말고 차라리아이들과함께 바다물에 몸을던저서 고기의밥이되는것이 조켓다고하며서로 손을잡고 락두하면서어업조합을 원망하는데 현장에서 보는사람은눈물을아니흘린이가 업섯다더라(삼호)

妓生의飮毒

비관인지위협인지

황해도백천읍내(黃海道白川邑內)영월관(瀛月館)이란 조선료리집에잇는 기생 방벽도(方碧桃)(二九)는 염수(鹽水)를먹고자살코자하는것을집안사람이발견하고 일변의사를청하야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 별반관계는업다는데 이제자세한 원인을 듯건대 전긔방벽도는 그곳청년 김모(金某)와피차사랑이날로깁허왓섯스나 량방이 다금전에자유롭지못한몸이라 항상 향닥이 오기만 기다리며 고통에고통을 더하여오던바 그날마침 전긔김모와맛나 자미스럽게 노는것을 집안사람이보고 두사람에게 무쌍히 구속을줌으로 이에더욱비관하야 자살을 계획한것갓기도하고 또는위협인것도 갓다더라(백천)

狂犬撲殺開始

룡산서관내에서

룡산경찰서에서는 일일부터 광견박살(狂犬撲殺)을시작하얏는데 이것은요전부터 그관내에미진개가 빈빈함으로 일개월가량을두고 이를예방코자 시행한다더라

靈光에折草爭議

樵軍四百餘名이暴行

제지하러갓든경관까지 집어동댕이를처버렷다

전남령광군 모량면신천리 김태봉(全南靈光郡畝良面新川里金泰奉)(三一)과 동리김성섭(同里金成燮)(二九)두사람은 지난달이십륙일 오후네시도부터 동일곱시까지 세시간동안 동면령양리 운당리、삼효리、삼동리(同面鎭陽里、雲堂里、三孝里、三洞里)초군(樵軍) 사백여명에게 무수히 란타를당하고 지난삼십일 전긔 두사람은 교자(轎子)로 령광읍내묵의원(靈光醫院)에 와서 김태봉은팔일간 김성섭은 십일간의 치료진단서(治療診斷書)를내여가지고 전긔

사백여명의가운데에서 두목으로 지위(指揮)하는선동자도 령광리관실, 리유첩, 리옥첩(劉陽里李判寶、李容燮、李玉燮) 운당리리연채, 리만섭, 리석연(雲堂里李永彩、李萬燮、李石淵)등여섯사람을 상대로당디 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한바 그내용을듯건대 신천리뒤산은 신천리와령양、운당、삼효삼리사람들 사이에 전부터일정한 구역(區域)을정하고풀을뷔여서 농사를지어오든바 금년에도 전례를딸하 지난이십오일 령양리초군들 다섯이 신천리뒤산에 올나가서풀을뷔는데 자긔네의 구역이아닌 신천리 구역에와서 풀을뷈으로 신천리

사람들은 이것을보고크게분개하야 십여명이 쫏차올나가서 령양리사람들의 풀짐을산산히헤쳐 버림으로 일시공긔가 조치못하엿스나 그때에는무사히서로 몰아갓섯는데 그이튼날인 이십륙일에 전긔령양리 초군들이 운당삼효 두동리(자긔네 동리는물론) 로도라다니면서 초군사백여명을 응원으로 청하야가지고 신천리 뒤산 꼴작이에매복한후한사람을보내여 신천리구역에다가 풀을치게하고 망을보든중 과연신천리사람들이이것을보고 전긔 김성섭이란사람이본저

쏘차가서

웨남의구역에 와서 또풀을치느냐고 하는말이 떠러지자 사방에매복하엿든 초군사백여명이 악 소리를치면서 달려들어 김성섭을포위하고 뭇매질을함으로 신천리 사람들은 그광경을보고 말리러 올나가는 족족잡아 두려트리고 뭇매질을하야 사람살리라는 비명의소리는 산천이떠나갈듯한 살풍경이낫섯든바 이급보를접한 당디주재소 금산순사부장(金山巡査部長)이급급히 현장에출장하야 매질을제지하매 사백여명 군중은 그만금산순사부장을 집어동댕이를치고

다시매질

을시작하고자 함으로 금산부장은 전력을다하야 겨우제지를시키고 각각돌녀보내엿는데 영양리에는 현면장과 산감(現面長及山監)이사는 마을로서동리(洞里)초군들이그와가튼폭거(暴擧)를한것은면장의과산감의세력을밋고또는면장의 동생리명로(李明老)와아들신호(信晧)등이가담하야가튼행동을 취하고지휘까지하엿슬뿐아니라 전에는 활엽수(闊葉樹)와 일년초(一年草)를불구하고 절초(折草)하여오다 가작년부터삼림령(森林令)에의하야일년초만을 절초케되엿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도저도

도라보지안코 되는대로 절초를하게된것은 삼림장려상으로보아 면장과 산감의배임(背任)의행위라하야면민 일부는 불평이자자하고 일반은 이문데가 장차엇더케 해결될는지주목중이라더라(령광)

自働車에醉客轢傷

눈과머리중상 불구자를미면

마산부석뎡(馬山府石町)김덕종(金德鍾)의자동차가손님만히태우고칠원(漆原)방면으로질주할지음에 창원군내서면두척리(昌原郡內西面斗尺里)김사순(金思淳)이란사람이석뎐리(石田里)부근에서술이만취한 한사람과힘난하든중에 자동차에서 수차경적(警笛)을울렷스나원악만취한사람임으로 결국자동차에정면충돌을하야 바른편눈과 바른편 관골이 상하고 가슴과 팔을 중상하얏슴으로 자동차운뎐수 김정석(金正石)이가 즉시 자동차에싯고 마산자혜의원에 수용하얏다는데 의사의말을들으면 약삼개월을지나야 쾌할터이라하나 머리에서 피를넘우과도히 흘렷슴으로 쾌한다할지라도 불구자는 면치못할터이라는데 자동차사고가 최근에와서는 빈빈함으로 일반은주의할일이라더라(마산)

동리사람과 싸홈하고나서

남편과자식을두고 어데로도망을갓다

아산군 신창면 수장리(牙山郡新昌面水長里) 조병익(曹秉益)의처 홍씨(洪氏)(二八)는 지나간 오월중순경에 동리사람과 싸홈을하고 나물바구니속에다가 보人집을 너허가지고 나가서어데로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조병익은 당디 경찰서에수색원을데출하엿스나 종적이 망연하다 더라(아산)

五十餘住民 聯名陳情

농사짓는토디가 저수디가되는까닭에

거산하게된다고진정

아산군온양(牙山郡溫陽)수리조합저수디인아산군신창면점량리득산리(牙山郡新昌面占梁里得山里)에는 원래별다른부업도업시농업을 힘쓰든바 오륙십호의 생명인 토디는전부저수용디(貯水用地)로사용함에따라 오십여호주민이 일시에 거산을하게됨으로 지난오월중에 오십여호 주민의 련명날인으로 군도당국과경찰당국수리조합당국에진정서를제출하고하회를기다린다더라(아산)

男便업는틈에

아들엿사주고

보人짐을싸가지고 도망을하야버렷다

전북남원군금리(全北南原郡錦里)팔십팔번디에서는 듯기에도 드문일대비극이 연출되엿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전긔번디에사는한상근(韓相根)씨는 수간협실을어더서 안해되는박삼철(朴三哲)(三〇)과두아들 한딸 합다섯권구가 살어오든중 내외가 힘 큼다하야 먹을것을구하엿스나 날로궁박한 생활은 더히 생명을 유지할수업슴으로

박삼철은 일전에 자긔남편에게 한계책을 말하되 이와가튼현상으로는 살수가업는중 또다시생산될자식은 엇지하야 살리겟소 차라리 내가몸을떠나라도 남편과자식은 잇지아니할것이니 그러케알고 서로작별하기를 말하엿다 이말을들은 한상근씨는 붓가함을말하고 거절한일이 잇섯다는데 지난삼십일은 남원시장날이라 남편된한상근씨는 장날을리용하야 몬푼이나 벌가하고 장에간뒤에 그의처 박삼철은어린자녀에게엿(飴)을사다주며나아가 놀라하고 자긔의녹동불을 모조리싸가지고 … 다라낫다는데 안해를 일흔한상근씨는 … 아들형데와 딸 … 압헤두고 한숨만짓고 잇다더라(남원)

三湖漁組와 市民間의葛藤

공동판매소문뎨로

본보에 수차긔보한바와가티 삼호어업조합에서는 시민측의 요구도불구하고 조합총대등의 결의로현시장에서원격한조합하편에 공동판매소를 설치하기로하얏는바 그공매소내에서는 어물을소매하기용이치못하나그부근에점포를설치하면얼마든지소매할수잇슴으로 조합총대 겸의대로공매소가되고또한그부근에서소매할수가잇기까지된다면현시장은실로일벽촌에 지나지못할뿐이라시장이라고할수업게되겟슴으로 일반시민들는 전긔조합의 행사하는것만 주목한다는데 만약조합의주장대로된다면조합측에대하야일반시민들은일대사뎍으로대항하리라는데삼호는이문뎨로인하야 삼호전반이 어느정도까지 소동되고 또한여하한분쟁이생길는지 의문중이라는데 당국에서는하등의대책도강구치 아니한다고 일반은더욱 비난한다더라(삼호)

平壤甜菜凶作

해충이심하야

평양부외(平壤府外)선교리(船橋里)제당회사에서 감채(甛菜)재배디로뎡한 평남대동군 대동강면원암리(猿岩里)일대의 감채는 금년에해충이 더욱심하야 무쌍한손해를입는중이며 일본히 해충을구제하려하나 입이약한까닭에 손을무칠가망이 업서 제당에큰위협을당한다더라(평양)

어린이文庫

소학생들의독서열도 이즈음에와서는 학교교사들까지 놀라게하는경향이 잇서 『어린이』『신소년』잡지를 비롯하야 기타 소년잡지들이며 동화출판물이만히발행되는형편에 이르게되는바처처의소학교와보통학교에서는이경향에조장하는동시에문고까지만들어 주는데도잇는데평양상수 공립보통학교(上需公普校)에서는 이번학긔내로 매학생의수업료중매월십전식을 수합하야조선문과일본문의아동들의읽을책을 만히사서특히『어린이문고』를만들어노코 일반아동에게 데공한다는바 일반학부형의찬동이만타더라(평양)

휘파람

▲진주(晋州)어듸서는남편과싸호고화가난다고 제손으로 제가슴을 찔는 녀자가 잇다나 ▲화가 난다고 제손으로 가슴을 그러케 찔느다가는 만보 나종에가슴에잇는칼사죽면 평생에 화가 몃번이나낫든것을알음직한일이야! ▲광주(廣州)고리대금업자들은가난한사람들에게 조(粟)한포대에 벼(稻)한섬식을 밧기로하고 게다가또변전은천금을바든후에빗을 놋는다고 ▲고개(峴)마루에서칼을들고 행인의돈을 빼앗는것보다 안저서 가난한자의피(血)를빨아 마시는것이힘들지안코쉽긴쉬우렷다! ▲묘한방법이로군……